



세미나중계 - 뉴밀레니엄시대의 국립공원 관리방향

이젠 생태관광 시대... 개발보다 복원을



국립공원은 대부분 생태적 가치가 높고 자연 경관이 아름다운 곳이 지정된다. 하지만 우

리나라의 국립공원은 67년 지리산이 처음 지정된 뒤 20개로 늘었지만 보전보다는 개발과 이용위주로



관리돼 자연생태탐방지 또는 휴양지로서의 기능은 감소하고 유원지화하고 있다.

국립공원협회가 지난해 12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뉴 밀레니엄 시대의 국립공원 관리방향」세미나에서는 국립공원의 생태보호와 합리적 이용방안이 논의됐다.

송중석(宋鍾碩) 안동대 생물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지만 도로의 개설, 집단시설 지구의 도시화 등 개발행위로 인해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송교수는 이에 따라 우선 인위

적 개발행위를 줄이고 멸종 위기에 처한 생물상의 복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송교수는 이를 위해 「생육상황이 아주 나쁜 종은 식물원이나 수목원, 묘포장 등의 시설로 긴급 피난시켜 유전자 자원을 일단 확보한 후 증식시켜야한다」는 방법을 제시했다. 또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식물종을 재배할 때는 어디서 채취하고 어디서 증식했다는 「혈통서」를 반드시 첨부해 기원을 기록해야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주희(李周熙) 대구대 생명환경학부 교수는 21세기 국립공원의 요건으로 환경해설프로그램을 제시했다. 환경해설이란 탐방객들에게 공원의 자연과 문화유산을 상세하게 소개하는 프로그램. 이교수는 「환경해설은 탐방객들이 단순히 놀다 가지 않고 무엇인가를 배워갈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며 「선진국에서는 이미 활성화한지 오래」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행글라이딩 산악자전거 등 훼손이 적

은 레저는 국립공원안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이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병선(林柄善) 목포대 생물학과 교수는 갈수록 그 가치가 높아지는 갯벌 생태계의 보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임교수는 「간척사업으로 전체 갯벌의 30% 이상이 소실됐지만 생태관광이 확산되는 등

관광패턴이 변하면서 갯벌은 특이한 지질과 지형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임교수는 따라서 갯벌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법제가 우선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자연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자연공원법과 자연환경보전법등이 대부분 산림 생태계를 중심으로 한 육상생태계 보호에 치중



제20회 자연공원 세미나 - 뉴 밀레니엄 시대의 국립공원 관리방향이라는 주제로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하고 있어 갯벌 보전을 위한 법제로서는 마땅치 않기 때문이라고 임교수는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자연자원 보호보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입장료 등 수입액은 전액 국고에 귀속시키고 국립공원 관리를 위한 제반재원은 전액 정부예산에서 편성지원할것 등을 내용으로 한 대정부건의안을 채택했다. ▲

다음은 대정부건의안 전문이다.



입장료등 전액 국고 귀속 보전관리비 전액 국가예산으로

국립공원협회와 국립공원발전연구회가 공동주관하여 1999년 12월 7일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뉴 밀레니엄 시대의 국립공원 관리방향」이란 주제로 제20회 자연공원세미나가 개최되었다. 국립공원협회 회원, 국회국립공원발전연구회 회원, 자연생태계 학자, 산악인, 환경관련단체, 일반시민 등 관련인사 200여명이 한 자리에 모여 다음의 5개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참석자들의 열띤 토론으로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마지막 종합토론의 결론으로 다음의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이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하였다.

주 제

- 1) 우리나라의 국립공원 관리정책
 - 2) 국립공원 자연생태계 종다양성 보전과 국립공원 구역 조정에 대한 제언
 - 3) 21세기의 국립공원의 운영 관리전략
 - 4) 국립공원관리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 5) 갯벌 생태계의 중요성과 그 보존방안
- 우리나라의 국토면적의 6.5%에 해당되는 국립공원은 보존해야 할 소중한 자원인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희귀 동·식물의 서식처로써 자연생태계의 보고이며 국가를 대표하는 수려한 자연경관 자원이다.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21세기를 맞아 우리 모두는 이 아름답고 소중한 자연을 한점의 훼손 없이 보존하고 관리하여 후손에게 그대로 물려주어야 할 막중한 의무와 책임을 가진다.

○ 21세기는 환경의 중요성이 어느때보다 더욱 강조될 뿐만 아니라 숲과 자연은 인류탄생의 근원이며 육신의 모태이자 회귀(回歸)의 안식처임을 새롭게 인식하고 이러한 삶의 원천인 자연자원의 상징으로서 국립공원에 대한 관리는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 이처럼 중요한 국립공원관리의 막중한 책임을 맡고있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공원관리비 약 460억 중 70% 이상을 입장료 등 자체수입에 의존함에 따라 전체 직원의 35%에 이르는 225명이 입장료등 수입금 징수업무에 매달리고 있어, 가장 중요한 국립공원 자연자원 보호·보존업무는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전 직원이 하루 빨리 국립공원에 대한 자연생태계 보호 업무 및 환경관리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21세기 국립공원관리의 시급한 과제임을 다같이 인식한다. ▲

이에 이번 세미나 참석자 전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수입제고에만 연연하지 않고 국립공원 자연자원을 보호·보존하는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입장료 등 수입액 전액은 국고에 귀속시키고, 국립공원관리를 위한 제반재원은 전액 정부 예산에서 편성지원 할 것을 건의한다.

제20회 자연공원학술세미나

- 주 제** 뉴 밀레니엄 시대의 국립공원관리방향
- 주 최** 국립공원협회, 국회국립공원발전연구회
- 참석자** 국립공원협회 회원, 국회국립공원발전연구회 회원, 생태계 학자, 산악인, 환경관련단체 회원, 일반시민 등 관련인사 일동